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후 1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학교사무실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일조 및 월정헌금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나다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기재된 봉투가 없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은 축도 후 송영이 끝난 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욘 3:1-5 / 시62:5-12 고전 7:29-31 / 막 1:14-20

왕상 2:26-27, 35

오늘 식당 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린 이소혜 박유경 김성우 강세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이선화 정영란 박석희 홍성식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7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겨울 중에도 종종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냉혹한 시절을 살며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따스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지치고 곤한 영혼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지 못하고 오직 집권과 이권에만 눈이 먼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부유한 자만을 편드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편드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인석 이선화 김정진 김혜정 김주영 노우영 김훈동 유경순 류건형 이주은 박석희 조항미 박예림 박옥순 송동준 김진경 안보혜 오미숙 오보영 손규현 이현순 임영선 임형욱 장원호 박성희 조헌권 박아영 채인규 최미자 최옥자 최재욱 이수정 허성호 진은혜 허신열 강금연 홍순복 황지현 무명2

<약정>
김현동 오유경 박종철 안미숙 왕수명 이동천 최형균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홍순구 안홍숙

감사헌금
김금숙 김영순 김진중 김태정 박석희.조항미 박찬영 오민용 이유선 전인섭 무명12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박시내 옥귀희 이미혜 허호범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김지현 김홍기 최철수 무명4

	백 혜 숙 신 진 식 장 영 숙 노 순 옥 박 홍 재 권 미 숙 김 금 순 곽 권 희 안 홍 숙 김 경 혜 박 혜 경 김 재 흥 김 재 흥 이 범 석 이 범 석 신 진 식	박 성 희 최 경 미 신 영 신 진 정 숙 박 홍 재 박 미 영 김 금 순 윤 수 진 오 현 정 홍 춘 숙 박 혜 경 오 자 영 송 형 운 이 진 영 곽 상 준 이 오 복	쉼	쉼

마음으로 읽는 글

나에게 보내는 노래

– 안도현

너를 위해 내가 불러줄 노래가 있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가야 할 길이 많아서 철길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철도노동자는 푸른 제복을 벗지 않고 있다
기다리는 기차는 오지 않았지만/ 대합실을 이대로 비워 둘 수는 없다
죽어도 누울 곳이 없는 껌팔이 소년과
귀싸대기 빨간 능금들을 좌판대 위에 두고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집이란, 돌아가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
국물을 끓여먹고 등짝을 데우는 곳이 아니라
단지 떠나야 할 때 구두끈을 조여매는 곳
떠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으니/ 정작 돌아오려거든 늘 떠나야 한다
나 아닌 것들을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번도 목숨 걸고 살아 본 적이 없었다
다가오는 겨울의 발자국 소리만큼 덜컹대는
유리창 앞에서 아아,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갈탄난로를 피우지 않았다고 투덜대는 것보다는
세상은 내 한 몸이라도 들이밀어 바람구멍을 막아야 하는 곳
너를 위해 버려도 좋은 내 몸뚱아리 식지 않았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세상은 사실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부질없는 두려움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향해 힘차게 나서십시오. 하루하루 용기 있는 순례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삶이 가져다주는 많은 문제들로 쉽게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있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주일오후 / 쉼	**수요저녁성경연구** / 강의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정윤성 선생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김종락 집사

1	영접위원	하현철 임주빈 권 순 최현옥 고숙이 김순자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즐겁게, 자유롭게

노래 부르기와 '살아 있는 말'로 이야기 나누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모든 덴마크 자유학교의 공통점이다. 그 전통은 1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씨앗을 뿌린 이는 덴마크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콜라이 그룬트비다. 그룬투비가 살던 시대의 주요 시민은 농민과 그 자녀들이었다. 그룬투비는 그들을 '깨어 있는 시민'으로 만들려면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공교육보다 시민과 학부모들이 만든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육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 그룬트비는 아래로부터의 교육을 주창했다.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인 삶과 어울리는 '노래'와 '살아 있는 이야기'를 통한 '함께 나누기'를 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삼았다.

… "그룬트비와 콜은 농민들이 주요 구성원인 사회에서 자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그때와 완전히 다르죠, 도시화가 진행됐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을 초월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도 그래섭니다. 그 전통의 핵심인 '살아 있는 말'로 가르치기는 학생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차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게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되었지만 컴퓨터가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엔 세상은 평평한 것만도 아니고 네모로 정해져 있지도 않죠. 우리는 학생들이 유연한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꾸어도 공동체 속에서 살아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어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덴마크의 프레데렉스베르 자유학교 교장 잉에게르 아우켄)

그룬트비와 콜이 뿌리내린 덴마크 교육철학의 핵심은 '즐겁게'와 '자유롭게'다. 아우켄은 자유학교의 정신이기도 한 이 두 가지가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했다.

우선 '즐겁게'를 보자. 프레데렉스베르 프리스콜레의 교실과 뒷마당에서 배우고 뛰어노는 학생들은 즐거워 보였다. 그 즐거움의 비결 중 하나는 '집 같은 학교'에 있다.

"그룬트비는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가 집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 말고 이런 자유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신기한 것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는데도 자유학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 운영비의 75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하고 실제 수업료의 25퍼센트만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학부모 당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다.

"우리 헌법에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꼭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철학과 방법에 의해 배워도 됩니다. 이러한 정신은 그룬트비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교육을 이해하려면, 더 정확히는 덴마크가 어떻게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가를 알려면, 자유학교의 어제와 오늘을 봐야 한다. 학생 선발권, 교사 선발권, 교과 편성권의 자유도를 보면 자유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순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자유도의 차이가 서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룬트비가 자유학교를 만들면서 강조한 것들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도 고스란히 학교의 핵심 가치로 스며들어 있다. 학생들을 '즐겁게',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것, 수업에서 노래 부르기와 '살아 있는 말'을 강조하는 것, 국어·영어·수학보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것, 비판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 등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었다.

자유가 특별한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문화'가 되어 있으며 그것을 초중등학교부터 체험한다는 점이야말로 덴마크를 행복지수 세계 1위로 만드는 기반이다.

–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오마이북) 중에서